

상생, 놀이, 학습하는 마을공동체

-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김해마을놀이학교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현순안*, 김세광**

초 록

본 연구는 경남도 교육청 내에서 놀이를 매개로 운영된 마을학교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마을놀이 학교에 참여하게 된 학부모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하게 된 배경과 참여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을놀이학교 활동 경험 진술을 토대로 마을놀이학교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마을놀이학교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참여과정의 요인은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이 자신이 속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참여자의 성향대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은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이어지게 하며 참여자들의 참여 과정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교육적 함의는 놀이가 주는 유익, 공동체의 개선할 점, 및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김해마을놀이학교는 학부모들의 자발성과 놀이를 매개로 하여 큰 불만이나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놀이협동조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참여 과정이 교육 개선을 위한 정치 참여 인식과 욕구로 이어졌다.

주제어 : 청소년 활동, 놀이, 상생,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참여

I. 들어가며

한 애가 방과 후를 하고 헐레벌떡 뛰어 나와서 그네를 전투적으로 5분을 타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막 뛰어 가요. 학원, 피아노 학원 가요. 피아노 학원 갔다가 그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고 두 세 시간 노니까 또 와요. 그럼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10분 놀아요. 또 학원가요. 영어학원간데요...(제보자 A).

* 제1저자, 부경대학교 교육컨설팅 협동과정 박사과정, soonann1111@naver.com.

** 교신저자,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조교수

연구자의 어린 시절만 해도 일몰하기까지 골목길은 아이들이 뛰어 노느라 시끌벅적하였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골목길의 풍경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뻥뻥이 들어선 아파트와 도시의 건물들 사이의 마당은 사라졌고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골목길은 거의 사라졌다. 공을 굴릴 마당도, 달리기를 할 골목길도 없어 운동을 하러 스포츠 센터에 간다. 수업료를 지불하고 운동을 한다. 친구들도 학원에 가야 만날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도 전면 시행 후 여가활동 시간이 더 많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늘어났다’는 응답보다 ‘이전과 변화 없다’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오히려 사교육 시간이 늘어났으며 10대 청소년들은 과반 수 이상이 주로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놀이조차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머니투데이 2017.8.3). 어렵게 생기는 여가시간에는 스마트 폰과 컴퓨터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 뛰어 놀지 않는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 여가,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6.4. 기사 자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마을, 아이가 뛰어 놀고 어울리고 더불어 사는 마을이 필요하다. 서로 마주치며 함께 공유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마을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살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필요를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우리사회는 거대 자본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게서 교훈을 얻어 적용, 실천하는 사례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 걸쳐 마을공동체를 설립 추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관의 협력적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공동체를 엮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환경적으로 마을을 재생 발전하는 사업과 함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마을 구성원들이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참여할 뿐 아니라 마을 구성원 모두의 전생애적 평생교육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실행들이 각 지자체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김해를 시작, 창원, 마산, 진해, 진주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김해 행복교육지구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는 학생중심 마을학교, 놀이중심 마을학교, 지역중심 마을학교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다. 김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놀이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해마을놀이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주도와 지원으로 처음 실시하게 된 놀이를 매개로 한 마을학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마을놀이학교에 참여하게 된 학부모들의 면담을 통해 참여하게 된 배경과 참여 과정에 그 초점을 맞추고 마을놀이학교 활동 경험 진술을 통해 마을놀이학교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홍진이(2013 : 160)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실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일부 계층과 주민만이 참여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으로 밝혔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통의 공유된 공감과 이해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참여가 낮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배경과 참여과정을 살핌으로써 마을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 참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놀이학교'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참여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2. '마을놀이학교'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3. '마을놀이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역적인 접근과 접근성을 근거로 한 지역주민간의 유대 관계 및 상호작용을 꼽는다(박상옥, 2010; 이은진 2006; Driskell & Lyon, 2002). 하지만 마을은 행정구역상 구분되는 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 범위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는 단위(이호, 2006 : 47)로 사람 중심적 개념이다.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 약화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과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을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오혁진, 2006 : 91-92). 또한, 학습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동력이며 학습이라는 집단 현상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유민선·강대중, 2013 : 150).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로 도시는 편리해졌지만 자연경관은 훼손되어지고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은 상실되고 인구급증과 교통난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로 도시생활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마을 만들기 정의 개념을 3가지로 정리하면(김진아, 2013 : 25; 정석, 1999), 첫째,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마을을 가꾸는 일인 ‘삶터 가꾸기’ 둘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활동체계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이루기’ 셋째, 책임감 있는 건강한 마을 구성원으로 기르는 ‘마을사람 만들기’ 이다.

태운재·박소현(2010 : 177)은 26개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통해 마을 만들기 정의를 살펴보고 한국 마을 만들기의 개념적 특성으로 ‘주민 자발성’, ‘공동체 형성’, ‘지역자원 활용’, ‘생활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 5가지를 주요 개념으로 도출하였다.

마을만들기 초기에는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개념도입,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사례 분석 및 사업 추진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그리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김진아, 2013:35-39).

지역 현장을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거버

넌스(local governance)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정책적인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민·관이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의사결정체로 의미(심용보, 2013 : 43)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의 범위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학교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교육이해 공동체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정리할 수 있다(김용련, 2015 : 265; 신현석, 2006).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교육의 영역에 확장, 적용한 교육거버넌스는 교육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뿐 아니라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생산, 실천, 평가해 내는 모든 교육적 장면에서의 협력적 관계와 참여로 교육거버넌스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김용련, 2015 : 278)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에서의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학습을 통해 얻게 된 성장의 결과가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어지는 ‘선순환적’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박주희 외, 2015:32).

마을교육공동체는 먼저 마을이 있어야 하고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도시생활에서 마을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접점은 교육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우리 사회는 이웃을 하나로 맺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김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놀이학교는 처음 시작 단계이다.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초기 단계를 내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초기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제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시작하여 학부모들의 의사결정에서부터 교육 활동을 생산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협력적인 관계로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 “신나놀go!” 김해마을놀이학교 소개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는 경남도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김해교육지원청의 주도와 지원으로 2017년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김해 행복교육지구에서 운영하는 학생중심 마을학교, 놀이중심 마을학교, 지역중심 마을학교 중에 하나이다.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는 2017년 7월 15일에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9회기에 걸

쳐 진행되었다. 토요일마다 격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김해 연지공원과 연지공원 내 실내 체육관에서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여 놀았다. 여름 방학에 연지공원에서 물놀이를 진행되었던 3회기는 80 여명이 모이기도 하였다.

마을놀이학교를 이끌어 가는 학부모교사는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8회기에 걸쳐 ‘놀이를 크는 우리 아이’라는 타이틀로 학부모 놀이선생님 양성 과정을 거쳤다. 놀이전문가의 놀이에 대한 강의를 1회로 시작하여 재능 기부한 지역 놀이전문가의 주도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8회기는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실제 놀이마을학교를 진행하듯이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다. 일련의 교육과정과 실습을 거치고 놀이 평가와 놀이학교 계획 회의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학부모 교사들은 ‘신나고 즐겁게 놀고 가자’라는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를 세우고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인간은 성장과 통합 그리고 건설적인 사회적 발달과 개인적인 행복(well-being)을 위한 본성적인 성향의 촉진을 위해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자율성(autonomy)을 필수적인 욕구로 가지고 있다(Ryan & Deci, 2000 : 72). 인간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자 한다. 외적 억압이나 보상보다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지 그 역할을 스스로 규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업들을 개념화하는 것을 ‘학부모 역할 신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학부모 효능감’이라고도 한다.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부모 자신의 능력과 특정 기술 및 효과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홍송이(2016)에 의하면 학부모의 참여에 있어서 자기 결정성이 높을수록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에 참여한 학부모교사들의 경험 진술을 통해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을 욕구로 하는 자기 결정성의 원리를 이끌어 낸 그들의 참여 과정을 살펴보고 촉발되어진 그들의 내재적 동기가 변화된 학부모 효능감과 함께 사회적인 삶의 영역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교육적인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놀이

인간은 '놀이'를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놀이는 삶과 떼어 놓을 수 없으며 놀이 자체가 학습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 성장발달에 주요한 변인이 된다.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적인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놀이에 관한 이론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신체 에너지의 역동 및 진화의 관점에서 놀이를 보는 고전 놀이이론과 아동의 발달과 심리학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한 현대놀이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희, 2015 : 23).

Huizinga(1938)는 그의 저서 'Homo Ludens'에서 놀이의 일반적인 특징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놀이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강압적이거나 명령에 의한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며 언제든지 정지되거나 지연, 연기될 수 있다. 둘째, 놀이는 일상적 실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상에서 탈피하여 일시적 행위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사회적 기능으로 중요한데 놀이에의 표현적 가치는 그 정신적·사회적 결속을 가져오며 공동체적 이상을 충족시킨다. 셋째, 놀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시간과 공간의 특정한 한계 속에서 그 나름의 방향과 의미를 갖고 "놀아진다(played out)". 놀이는 적절한 시간이 되면 종료가 되고 아무 때나 다시 반복되어질 수 있다. 놀이는 질서를 창조하고 놀이 자체가 스스로 하나의 질서가 된다.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와 일상에 잠시나마 제한적인 완벽함을 제공하며 삶의 리듬과 하모니를 가져다 준다. 넷째, 놀이는 긴장이다. 놀이의 불확실성과 우연성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 또한 놀이 자체는 선과 악을 초월하며 윤리적 가치가 부여된다. 놀이에 대한 몰입은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게 만든다(Huizinga, 1938; 이종인 역, 2011 : 41-47)

마을교육공동체들은 독서, 공동육아, 동아리 활동 등 구성원들의 공동 문제와 필요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교육적인 매개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놀이를 매개로 하는 김해놀이학교 '신나놀go'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놀이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그들만의 공동체 특성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놀이를 통한 그들의 경험이 주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김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놀이학교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특정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 맥락화 되어 현재 우리사회에 진행 중인 현상을 탐구하는 심층면담을 활용한 ‘사례 연구’방법으로 진행한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이해와 현상과 관련된 주요한 정황의 조건들에 대해 이해하고(Yin & Davis, 2007; Rober Yin, 2012 : 44) 김해마을놀이학교 사례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의미를 구성해내기 위한 탐색이다.

1. 연구 절차

〈표 1〉 현장 참여 관찰 및 면담 일정

참여 관찰 및 면담	일 정
교육 활동 현장 참여 관찰 1회	2017년 10월 21일 (토)
2회	2017년 11월 4일 (토)
3회	2017년 11월 18일 (토)
집단 면담	2017년 10월 21일
심층면담 제보자 1	2017년 11월 10일
제보자 2	2017년 11월 10일
담당 공무원	2017년 11월 16일

마을놀이학교 프로그램의 3차시를 참여 관찰하였으며 관찰일지 및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여 관찰과 함께 먼저 학부모님들의 집단 면담을 1회 실시하여 심층면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았다. 집단면담에서는 학부모 교사 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집단면담으로 마을놀이학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학부모교사와 순수참여 학부모교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학부모교사 1명과 순수참여 학부모교사 1명을 표집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놀이학교를 담당하는 김해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심층면담도 이루어졌다. 이는 아동을 제외한 마을놀이학교를 이끌어 가는 구성원들 안에서 참여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는 구성원의 세 유형이라고 판단되어졌다.

무엇보다도 제보자 3명의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전사 자료가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 외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지를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글 설문지의 형태로 SNS를 통해 배포하고 설문 동의 및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서술형 설문지에는 6명의 학부모교사가 참여하였다. 서술형 설문지의 내용은 심층면담의 내용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의하에 학부모들의 비공개 SNS(밴드)에 가입하여 구성원들의 활동들을 관찰하며 탑재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학부모 비공개 SNS 활동(BAND)을 관찰한 기록과 SNS에 탑재된 자료가 본 연구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비가입 자료인 기사, 문건 등을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표 2〉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내용
문헌 검색	이론적 근거 및 선행 연구
연구자의 교육 활동 참여관찰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통해 기록한 관찰 일지, 성찰 일지 및 사진, 동영상 자료 수집
연구자의 비공개 SNS(BAND) 활동관찰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기록한 관찰 일지 및 탑재된 자료 활용
집단 면담(학부모교사 4명)	집단 면담을 통해 심층면담 표집 및 면담 방향 설정
심층 면담 (학부모교사 2명, 담당공무원 1명)	면담 내용 전사 자료
구글 서술형 설문지 (학부모교사 6명)	연구주제 범위 안에서 서술형 질문이 이루어짐
기타 자료	관련 보도 기사 및 사진 자료 참고

여러 번의 현장 관찰과 장기간의 비공개 SNS 활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집단면담 이후 교육청 실무자와 주도적 참여자와 순수 참여자의 심층 면담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들을 찾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동료 연구자의 비평을 거치는 절차를 거쳤으며 연구 결과 작성 후 제보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 검증 받는 절차(member check)를 거쳤다.

제보자의 면담 내용 모두를 전사 작업 하였고 전사 자료와 관찰 일지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모으기, 나누기, 재배열하기(Robert K. Yin, 2016:275)”를 하고

모으기 단계에서부터 나누고 재배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며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단계를 거쳤다. Huberman & Miles(1994)는 질적 연구에서 분석이란 수집한 자료를 요약정리하고, 코딩하고 패턴과 주제를 찾아 개념 범주에 따라 덩어리로 묶는 작업으로 설명한다(조용환, 2006 : 38). 반복적으로 읽으며 유의미한 단위로 세그먼트를 하고 그에 대한 의미와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각 자료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제끼리 재배열과 재결합을 하며 이를 연구문제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2.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김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놀이학교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다. 마을놀이학교 모든 참여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활동 및 SNS 활동의 참여 관찰 대상자가 되었고 서술 질문지를 통해 여러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심층 면담은 집단 면담을 통해 참여 학부모 가운데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부모교사 1명과 순수 참여 학부모교사 1명을 목표 표집하여 면담을 실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면담도 진행되었다.

연구 시작 전 연구동의서를 받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익명 보장 및 비밀 유지를 약속하고 연구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시켰으며 면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였다. 또한 비공개 SNS 가입에 있어서도 동의를 얻어 놀이 팀장 학부모교사의 초대로 가입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학부모교사들의 마을놀이학교 참여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심층 면담 3인의 심층적인 진술이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연구 참여자는 놀이학교에 “그냥 놀러만 가는” 순수참여 학부모교사 A, ‘원래 엄마들 막 데리고 다니는’ 적극주도 학부모교사 B, ‘같은 아이 엄마여서 학부모들과 소통이 잘 되는’ 담당 공무원 C 이다.

IV. 연구 결과

1. 바람이 분다! ‘좋은 치맛 바람’ : 참여배경과 참여 과정

교육은 공동체를 엮는 아주 좋은 매개가 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교육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근접한 영역에서 각자의 성향과 신념대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 지역적인 공통분모를 가졌기에 해당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고 교육청은 학부모네트워크의 ‘라운드 테이블’ 활동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놀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놀이 선생님 양성 과정을 개설하며 이에 공동의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1) 교육이라는 매개체

취학 적령기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의 관심은 교육과 놀이이다. 김해 지역의 특징은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과 공원이 많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은 처음 이사 간 동네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주민들이 모여 함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 생활 중심권이 되는 것이다.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이 그들의 관심 중심권이 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공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보내는 공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 측은 학부모의 무관심에 피로가 쌓여 있다. 학부모들은 기존의 동원 형식의 학부모 교육에 실증이 나 있고 그런 동원식 교육에 ‘아 저기는 회장들만 가는갑다.’ 라고 생각한다.

요즘 마을마다 마을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그들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다. 협동조합은 마을 모임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협동조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교육을 통해 그들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선순환적이며 발전적인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다.

2) '좋은 치마 바람' 학부모 네트워크

경남도 교육청의 학부모 네트워크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학교와 학교 간의 소통, 학부모들 간의 소통,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 참여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부모의 의견까지도 수렴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교 내 활동 혹은 학교 이외의 활동에까지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그 취지가 있다. 교육청은 기존 동원식의 학부모 모임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존 진행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비공개 SNS(BAND) 활용과 문자 홍보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직접 소통한다.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공지 및 행사 접수는 학부모 회장 라인 밖에 참여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SNS가입은 학기 초 학교 공문으로 나가고 학부모들의 소개 소개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청과 필요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으로 공간과 그 준비를 맡지만 홍보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공지로 충분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에 있어서 기존의 폐쇄적인 라인에서 탈피했다는 것과 함께 학부모들의 필요와 만족도에 있어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학부모들 사이의 정보 교류는 학교들 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지시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 모임과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들의 건의와 활동들을 지지함으로써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부모 네트워크는 약한 결속력의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방향성의 특징이 강한 온라인 홈페이지나 비공개 SNS 공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각 구성원들의 친밀함과 결속력은 아직 약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또한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3) '놀이로 크는 우리 아이' 놀이 선생님 양성 과정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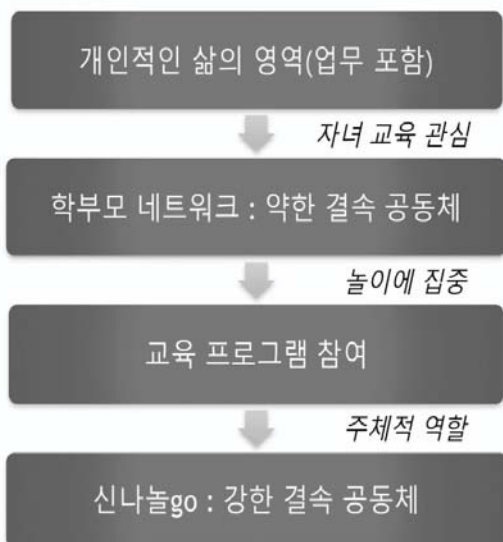
학부모 네트워크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과 온라인 학부모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놀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을놀이학교를 위한 놀이선생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다.

마을놀이학교 형성된 이유와 절차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참여 학부모교사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자신들이 낸 의견이 수렴되어서 마을놀이학교가 세워졌다고 생각한다. 적극주도 학부모는 이미 이전부터 교육청 행사(김해시와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 MOU 협약) 참여 등을 통해 김해시의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 행사에서 이루어진 타 지역의 사례 발표를 들으며 마을놀이학교 설립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담당 공무원도 학부모 네트워크의 월드 카페 형식의 토론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놀이에 대한 타당성과 학부모들의 호응도를 이끌어 냈음을 진술하고 있다.

놀이 강의는 놀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서부터 아동심리적인 접근 및 학부모교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놀이 방법 등 놀이 전반과 아동 교육 전반에 대한 것으로 동기 부여가 되어 인식 및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으며 자발적 역할 수행을 이끌어 냈다. 교육은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자의 입장이었지만 함께 놀 수 밖에 없는 ‘놀이’의 특성에 따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처음에는 공통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각자 자발적으로 모인 학부모들은 약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놀이선생님 양성 과정을 거치면서 놀이와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같은 공통의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그림 9] 교육 활동 참여 발전 과정 단계

[그림 9]은 마을놀이학교 교육활동 참여 과정 발전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넓은 영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늘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인 경우 지역의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학부모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된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에 의한 것이다.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부모라면 학부모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된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 학부모네트워크로부터 보내지는 정보에는 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들은 단순 학교의 공문에 의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듣고 가입하고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약한 결속력의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다. 놀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던 학부모들은 놀이 강의를 듣고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주도적인 학습이 일어나며 학습 주체가 되었다. 그들은 교육과 놀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다지며 그리고 함께 어울려 ‘진짜 노는’ 가운데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

마을놀이학교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 원리로 관심, 필요, 접근 용이, 놀이에 대한 친숙함이 도출되었다.

〈표 3〉 마을놀이학교 참여 원리

참여 원리	해당 진술 내용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 특별히 가자고 해도 사실은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가잖아요(제보자 A) - 한 엄마가 놀이에 관심이 있으신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관해서 노는거 학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혁신학교라든지 시골학교 보내고 싶으신 분이신거 같아요 근데 아이들 두 명이 딸, 그쪽도 딸 둘이예요 그런데 무뚝뚝해요 똥해요 항상 말을 걸어도 엄마는 놀아 멀리서 오신거예요 어방쪽이었나 삼정동 쪽이었나 차가 없으신거예요 차가 타고 오는...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사실 대중교통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오신거 같아요(제보자 A) - 보드 게임 강사와 미술심리상담사를 하는데 둘 다 정적인 행동이라 동적인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중 놀이교사양성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서술 설문지 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노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심심하다는 거예요 실컷 놀고 왔어요 심심하데요 놀아달래요 그러면 저는 놀아주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놀아주는 것 놀이학교 솔깃한거죠 아이랑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밖에서 놀애가 없는 거예요(제보자 A) - 아이들 발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제보자 A) -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필요할 것같다라는 공통점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게 초등학교 엄마들 중에서는 놀이었다. 그러면서 놀이로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놀이에 관심있는 엄마들이 모여보자..(제보자 C)
접근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유에 있기는 있어요 저는 차가 없거든요 그쪽에 접근하기가 어려운거예요 같이가는 엄마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김해에도 있으면 가까우니까 같이 놀고 놀면은 나도 같이 놀면 좋겠다 작은 아이가 엄마랑 놀기를 원했어요 심심하다고 있으니까 참 가보자...(제보자 A) - 짧은 놀이라도 와서, 인제 참여를 하다보면, 어 아이들, 그니까 꼭 그런 토요일 날 장소를 안오더라도 그냥 어디 막간을 이용해서라도 아이와 둘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제보자 B)

참여 원리	해당 진술 내용
놀이 문화에 대한 친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어떻게 노나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놀았는데 똑같아요 옛날에 놀던거랑 제가 어릴 때 뛰어 놀던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거죠 너무 재미있었어요...(제보자 A) - 나가서 재밌게 놀거든요. 응.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겠노. 놀면 내가 막 좋아가지고. 난 내가 너무 좋더라고. 내가 막 힐링이 되가지고...(제보자 B) - 그래 우리 어릴 때 요래 놀았다이가(제보자 B) -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 속의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서술 설문지 내용)

2. 불만과 갈등 없는 ‘신나놀go’ go go!

마을놀이학교를 통한 학부모교사로서의 경험과 김해마을놀이학교만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학부모교사로의 새로운 경험으로 생긴 엄마들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김해마을놀이학교가 주는 유익과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마을공동체와 구별된 그들만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 ‘나대는 엄마가 아니라 나서는 엄마로’ : 엄마와 교사 사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 아이들끼리 놀라고 놀이터에 넣어주고 엄마들은 놀이터 벤치에서 엄마들끼리 수다 떠는 것이 일반적인 놀이터의 풍경이다. 아이들은 놀다가 자꾸 엄마에게로 와서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 하며 손을 잡고 놀이터 안으로 이끈다. 아이들은 같이 놀자고 하지만 엄마들은 같이 놀자라고 끄는 손의 의미를 무시하기 쉽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논다.

놀이에 대한 강의와 교육은 아이들이 놀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시켜 주었으며 놀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녀들에 대해 더 한층 깊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실질적으로 놀아주는 방법과 갈등 개입 등 실제 사례 경험을 듣고 나누었는데 본격적으로 마을놀이학교를 진행하면서 교육 과정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과 사례 경험들이 상황에 따라 직접 적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부담감이 컸다. 자녀가 부담스러웠다. 자녀 때문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학부모로서는 몰랐던 자녀들의 심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녀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

게 되었다. 엄마라는 위치에서부터는 약간의 거리 간격들을 두고 우리 자녀를 볼 수 있었으며 교사라는 위치에서는 일반 교사와 학생의 거리와는 가까운, 우리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밀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 거리를 가질 수 있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엄마의 조력자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놀이에 대한 개념과 이해, 놀이 방법 뿐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역할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놀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간섭하기, 대신 문제 해결해주기, 같이 놀아주지 않기 등이 있으며 기다려주기, 지켜봐주기, 갈등 개입 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등 놀이 방법을 설명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 외에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배웠다. 이러한 내용은 마을놀이학교를 진행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학부모교사로서 발전한 학부모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향상시키며 활동의 영역을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10]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의 자녀와의 거리감

2) ‘큰 갈등이 없어요~’ 마을놀이학교의 특징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의 특징을 유익한 측면에서 12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유익한 측면에서 첫째, 자발적인 참여이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변인이다. 둘째, 학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장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발견된 장점을 강점으로 개발시키는 장이 되었다. 자녀와 학부모 모두의 성장 발전하는 변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이 일어났다.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게 되었고 놀이선생님으로서

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자녀들은 놀이의 유익을 통해 체험적인 학습을 경험하였다. 넷째, 학업 부담에서 탈피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다섯째, 참가 인원 규모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고정적인 형식에 얽매임 없이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큰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의견 충돌과 사소한 다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발성 뿐 아니라 여러 다른 특징들이 갈등을 없게 만드는 하위 변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자녀와의 유대감 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있는 엄마와의 '밀당'이 큰 역할을 했다. 여덟째, 서로의 역할을 관찰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학부모 자신의 학부모와 교사 역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엄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학부모 교사간의 역할 이해 등은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홉째, 원활한 의사소통은 협업을 일으켰다. 열 번째,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었다. 또래 집단에서의 상호 작용 뿐 아니라 아이와 어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종단적이고 횡단적인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열한 번째,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서로의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그를 위해 함께 몸을 부딪치며 활동함으로써 결속력이 강한 커뮤니티를 갖게 되었다. 열두 번째, 놀이와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과 확산의 방향이 마을에서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놀이학교는 지역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였으며 마을이 학교를 품은 형태가 되었다.

이런 유익에 비해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째, 인원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 입장에서는 참여 인원이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놀이선생님 양성과정에 참여했던 학부모교사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좀 더 가까운 지역에 또 다른 놀이 공동체를 만들어 참여하고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문제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확산 효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간과 시간제한에 대한 문제이다. 마을놀이학교를 할 만한 공간이 마음껏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연지 공원 안에서도 매주 그 자리는 바뀌었고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어 아이들이 양껏 뛰어 놀지 못했다.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여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놀이라는 특성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했다. 셋째, 일원화된 진행은 앞선 공간과 시간 제한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일방적인 진행은 아니었지만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놀이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동시에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문제이다. 교육청은 안전을 위해 처음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이번 마을놀이학교에서는 큰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매 회 진행할 때마다 신경써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3) 제보자들의 관점 차이

마을놀이학교를 두고 제보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홍보 문제와 참여 인원에 대한 생각이었다. 먼저, 홍보에 있어서 앞서도 밝힌바 있지만 교육청 및 담당 공무원은 홍보는 학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비공개 SNS공지로 홍보 업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적극적인 홍보를 교육청 측에서 하지 않아 놓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적극성보다는 학부모들의 적극성에 의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이다. 참여 인원에 대한 생각은 순수참여 학부모교사와 적극주도 학부모교사 및 담당 공무원의 생각이 나뉘어졌다. 순수참여 학부모교사는 적어도 좋고 많아도 좋다는 입장이다. 적으면 적은대로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놀이 집중도도 높아질거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적극주도 학부모교사 및 담당 공무원은 많은 인원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숫자 위주의 성과와 실적에 집착한다는 비판도 받기는 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뛰어 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3. ‘나눔이 있는’ 마을학습공동체 : 교육적 함의

놀이는 다양한 유익을 선사한다. 그 유익에는 개발시켜야 할 많은 역량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을 통해 탐색된 놀이의 유익이 놀이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며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를 유지 발전 확산시켜야할 당위성을 갖게 한다. 이에 김해마을놀이학교의 개선 방향 및 계획을 들어보고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정의해 본다.

1) 놀이의 유익

본 연구는 놀이를 매개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연구로 놀이라는 매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마을놀이학교를 통해 발현됨으로서 놀이가 주는 유익을 참여 구성원들이 경험하였고 그 경험 진술을 토대로 놀이를 통해 얻은 유익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놀이는 시·공간적으로 제한 없이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마을놀이학교의 놀이를 통해 놀이에 대한 본능과 갈급함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었고 긍정적인 승부욕의 발현으로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놀이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규칙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협상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놀이에 높은 집중력을 보였고 적극성, 자발성, 자립심, 인내심, 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소심하던 아이들이 활달한 성격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놀이를 통해 도전정신을 갖고 성취감을 경험하며 때론 실패경험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공감과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 관계성을 발전시키고 배려심을 배우고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함을 경험하였다.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2) 마을놀이학교 개선 및 계획

마을놀이학교 개선 및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조직을 더 세분화해서 확산시키는 것이다. 많은 마을놀이학교를 곳곳에서 운영하여 어디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에 들어가 방과 후 또는 방과 전 놀이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자원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요구되고 있다. 마을 교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청과 적극 주도 학부모교사의 경우는 마을 교사비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참여 학부모 교사 경우 마을 교사비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마을 교사비 지급으로 인해 자발적인 모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봉사점수 지급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 교육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무엇보다도 마을교사 교육과 같은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홍보 부족이나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참여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놀이학교 학부모교사 교육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몸으로만 같이 뛰어 노는 것 뿐 아니라 놀이 진행 틈틈이 아이들에게 놀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해서 인지적인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어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견이다.

셋째, 가장 이상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 뿐 아니라 마을 구성원 모두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놀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꼭 놀이 전용 센터가 아니어도 좋다. 마을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세대를 아우르며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 항상 상주하는 놀이선생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바람직한 마을교육공동체란?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마을교육공동체는 먼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개인은 동시에 다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 공동체는 각각 특성과 분위기가 다르다.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찾고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잘 어울려 잘 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협력과 협업이 있는 공동체이다. 공동 육아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존과 공생을 넘어 적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복돋으며 다같이 잘 살게 되는 상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력과 협업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학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에 있는 공동체이다. 소통을 통해 세대간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며 정치적인 견해를 좁혀 보는 것,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로하는 것,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산할 장을 마련하는 것 등 각각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경험하는 학습이 일어나는 공동체이다. 지금 학교 교육이 경험 위주의 학습으로 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의 이름과 특징을 외운다든지 사례를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것 등 학교교육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 가지 실제 과제를 함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감해주는 공동체이다. 서로의 경험 안에서 서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 공동체의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은 존재하는 듯하다. 피해되지 않는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공감이 필요하고 서로 배려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눔이 있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나눔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능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연예인 심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로에게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뽐내고, 그 재능과 특기를 다른 사람이나 또는 어린 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는 활동이 있으며, 그들이 보여주고 나눠주는 재능과 특기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말한다.

V. 나가며

우리 사회는 거대 자본 사회가 낳은 개인 간의 단절된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각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원으로 내몰리며 놀이 문화가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놀이를 매개로 한 마을놀이학교가 경남도 교육청에 의해 시작 되었다. 본 연구는 김해교육지원청의 주도와 지원으로 시작하게 된 놀이를 매개로 하는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하게 된 학부모들의 면담을 통해 참여하게 된 배경과 참여 과정을 알아보고 활동 경험 진술을 토대로 마을놀이학교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마을놀이학교에 참여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 과정이라 함은 참여자의 관점이며 교육청에 입장에서는 마을놀이학교 형성과정이다. 김해마을놀이학교 참여 과정이며 형성 과정을 손명희(2016)가 보고한 광주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증장기 추진 계획과 비교하면 김해마을놀이학교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광주광역시가 계획한 도입기 1년, 확산·정착기 2년, 발전기 1년의 단계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광주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발전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김해마을놀이학교의 경우 시작 해에 뜻 맞는 학부모교사들이 ‘놀라잡이’ 라는 놀이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이다. 이는 학부모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개인적인 행복(well-being)과 건설적인 사회적 발달을 위해 Ryan & Deci(2000)의 자기 결정성 원리에 따라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자율성(autonomy)이라는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재적인 동기로 촉발되었을지라도 점점 높아지는 자기 결정성에 의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로부터 부여 받은 학부모 역할이 내면화 되면서 점차 내적인 동기가 발현되어 능동적인 참여가 일어난다고 보고한 홍송이(2016)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 일반적으로 관. 공의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도입 초기의 마을공동체와는 다르게 참여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결과이다. 김진아(2016)의 포괄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보면 김해마을놀이학교는 가꾸어진 삶터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루기’와 ‘마을 사람 만들기’ 과정을 완수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교육을 일방적으로 수납하는 객체가 아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된 학습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변화는 교육이 학습이 되어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학습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심도 있는 학부모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체적인 교육 활동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들의 다양한 자원봉사의 형태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National Center of Education Statistics (2001)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70년에서 2000년까지) 어머니들의 학교교육 참여는 미취학 아동(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있는 청소년의 약 38%가 방과 전,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아동의 지각된 유능성과 통제를 향상시키고 안전감과 유대감을 가져다주며 아동이 교육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Gonzalez-Dehass et al, 2005; Dale H. Schunk et al, 2013).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이제는 좋은 치맛바람과 함께 “나대는 엄마가 아니라 나서는 엄마”로 성장 발전하는 학부모 및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 즉 학교 및 교육관계당사자, 학생과의 ‘삼박자’를 맞춰 나가야 한다.

학부모들의 자발성은 놀이라는 매개의 특성과 함께 큰 불만과 갈등이 없는 공동체로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놀이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했던 Huizinga Johan(1938)가 말하는 놀이의 특징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놀이의 특징인 자발성은 학부모교사들을 주체적으로 만들었고 참여하는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역량 개발 및 학습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일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던 놀이는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공동체적 이상을 충족시키며 불만과 갈등이 없는 결속력이 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탄생시켰다. “놀아지는” 놀이는 삶의 질서와 여유를 허락하며 정서적인 안녕감을 주었으며 놀이의 긴장은 흥미를 유발시키며 동기부여를 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성이나 문화보다도 놀이를 우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유희의 인간을 설명하며 유치하고 열등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한 Huizinga Johan의 주장과 같이 그 동안 놀이는 그의 역할과 공헌에 비해 너무 단순화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학습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놀이 그 자체로서의 심도 있는 평가와 교육에서의 적용,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마을놀이학교 구성원에는 학부모교사 외에 참여 아동들과 학부모교사가 아닌 놀이선생님양성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교육 활동 프로그램 중간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순수참여 학부모가 있다. 이들이 면담에서 제외되었음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또한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는 김해지역에서 그들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해마을놀이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초기 진입한 마을공동체이다. 이 김해마을 놀이학교를 어떻게 유지, 발전, 확산시켜나가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놀이 외의 다른 교육적 주제를 매개로 하는 마을공동체와 비교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목되어진 부분은 김해지역을 관할하는 교육 공무원과 지역행정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이다. 마을 구성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소통과 함께 즉각 반응으로 실행되어지는 지역 사업들을 보며 두터운 신뢰가 쌓였다. 이는 교육 개선을 위한 정치 참여 인식과 욕구로까지 이어져 적극 참여로 발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정책을 주도하는 지역 리더십은 지역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함께 그에 대한 적극 수용 및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실행시키고 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 우리 사회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공간도 인간이 있을 때 아름다우며 인간과 소통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보이는 공간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공간일 수 있고 커뮤니티 일 수도 있는 '장'을 마을 안에 만들어 주는 것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며 마을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2015). 놀이와 삶의 관계적 의미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 초등학생의 놀이문화 형성을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김용련(2015)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원리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2), 259-287.
-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발표
- 박상욱(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145-164.
- 박주희, 서용선, 주수원, 홍섭근, 황현정(2015). 학교협동조합, 현장체험학습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잇다. 서울 : 살림터.
- 손명희(2016).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광주마을교육공동체. 지방행정. 65권, 46-49.
- 심용보(2013).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 울산시 북구 지역노사민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2(1), 37-66.
-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 집문당.
- 유민선, 강대중(2013). 마을공동체 형성·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성미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1), 143-173.
- 이호(2006)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도시와 빈곤. 81, 46-60.
- 조용환(2006).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태운재, 박소현(2010).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7), 175-182.
- 홍송이(2016). 자기 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참여 동기 탐색. 학부모 연구. 3(1), 55~73
- 홍진이(2013).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151-169.
- Dale H. Schunk·Paul R. Pintrich·Judith L. Meece(2013). Motivation in Education(3rd ed.); 서울대학교 인지학습연구회 역(2013), 학습 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지원. 서울 : 학지사.

Huizinga J.(1938).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2010)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고양 : 연암서가.

Robert K. Yin(2011).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박지연·이숙향·김남희 역(2016),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서울 : 학지사.

Robert K. Yin(2012).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3rd edition, 2012);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2016), 사례연구방법(5판). 서울 : 한경사.

세계일보(2016.3.20.) 놀이조차 돈이 좌우하는 세상.

<http://www.segye.com/newsView/20160320001815>

머니투데이(2017.8) 놀줄 모르는 어른에 뺏긴 아이들의 놀 권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3112383488494&outlink=1
&ref=http%3A%2F%2Fsearch.naver.com](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3112383488494&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놀며 성장하라 전남 어린이 놀권리 조례(2017.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3/0200000000AKR20
170603035700054.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3/0200000000AKR20170603035700054.HTML?input=1195m)

ABSTRACT

A Village Community of Mutual Prosperity, Play and Learning : A Case Study on the Activities of Kimhae Village Play School with Youth and Parents.

Soonan Hyun·Kim se kwang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Kimhae Village Play School, a village school that specializes in games organized by the Kyongnam-do Office of Education. We will focus on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parents involved in the school, and draw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the school's statement on the activities.

Common interests in education regarding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town play school have become involved in the areas of their individual lives, making it a matter of preference for the children's principal interviews with their teacher.

As an educational implication as a village's educational community, the benefits and plans to improve the community as a medium for play could be drawn up and the meanings of the community was given.

The Kimhae Village Play School created a community free from major complaints and conflicts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used for play by parents, and made a remarkable achievement of a cooperative association. Such positive participation led to the awareness and desire to participate in politics to improve education.

Keywords : Youth activity, play, mutual prosperity, 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arent participation.

투고일 : 2018. 12. 10. 심사일 : 2018. 12. 17. 게재확정일 : 2018. 12. 25.